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nu.ac.kr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제875호

하영드리미 외국어 버전 없어 사용 불편 호소

수강신청·강의평가 등에 유학생들 애먹어
관계자 "일부 기능은 영어로 지원돼"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의 외국어 버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영드리미'로 알려진 통합정보시스템은 수강관리에서부터 생활관 신청까지 대학생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대 유학생 수가 600명을 넘어서 상태다. 유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하영드리미 외국어 버전 구축에 대한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편입 유학생 장유유(국어국문학과 3)씨는 "하영드리미에서 수강 신청 할 때 한국인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

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힘들다"며 "외국어 버전이 만들어진다면 유학생들이 이용할 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 유학생 노노반(생활환경복지 학부 1)씨는 "한 학기가 끝나면 학점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어로만

설명이 돼 있어 불편하다"며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라 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은 하영드리미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영드리미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

는 정보통신원은 외국어 버전을 추가로 축소하는 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경희(정보통신원) 정보통신담당관은 "외국어 버전을 새로 추가하면 하영드리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대신 하영드리미에서 로그인 후 언어 선택을 영어로 설정하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강신청, 학생생활관 신청과 같은 메뉴는 영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능을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류수학생 시미즈 마오(국어국문학과 3)씨는 "하영드리미에서 언어 설정을 따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 받지 못했다"며 "학기 초에 학과에서 유학생들에게 하영드리미 활용방법에 대해서 미리 잘 공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제6대 교수회장 선거 오는 25일

기호 1번 양길현·기호 2번 송석언·기호 3번 이상봉 교수
사회과학대 중강당·병원 도서관·사라캠퍼스 회의실서 투표



양길현 교수 송석언 교수 이상봉 교수

제6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3명의 후보들이 나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6면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호)는 지난 7일 입후보등록을 마

2시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오후 4시부터 1.2위 드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

선거장소는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제주대병원 도서관, 사라캠퍼스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앞서 오는 18일부터 3일간 교수회 사무실, 각 대학(원) 행정실, 기획평가과 사무실에서 선거인명부 공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투표는 전임교수들만 할 수 있으며 지난 1일 기준으로 588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한편 신임 교수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동현 기자

학생자치기구 예비후보자 등록… 총학생회 1팀 접수

동아리연합회를 제외한 학생중앙자치기구선 거 후보자 접수가 마감됐다. 총학생회(의장 김진영)에서 학생자치기구 선거 예비후보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호는 지난 10일 입후보자 합의에 의한 방식을 통해 정해졌다.

선거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소견발표를 한 후 오전 10시부터

해양토목공학과 4, 부 흥성훈 영어교육과 4)가 출마한다. 총대의원회에 길라잡이(정 양승훈 경제학과 3 부 신상우 동물생명공학전공 3), 의사소통(강대영 전자공학과 4 부 변화현동물생명공학전공 4)이 출마한다.

총학생회에 좋은일만(정 유병선·

오는 26일·27일 아라체전 열려

'아라체전'이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부터 이틀간 펼쳐지는 아라체전은 '이공일이' 총학생회(회장 정준호) 주최로 개최된다.

단과대학 단위로 참가하는 아라체전은 오는 26일에는 개막식, 종목별 예선 및 8강전, 27일에는 종목별 4강전 및 결승전이 열리고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라체전 기간에는 대운동장에서는 축구, 발야구, 씨름, 단체줄넘기, 계주, 승부차기, 줄다리기 등이 진행된다. 학생회관 앞에 위치한 한라타에서는 축구, 여자피구가 열린다.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가 진행된다. 한편 체전 첫날인 26일에는 대학 공식 휴강일로 지정됐다.

2013년도 수시 2차 모집 경쟁률 3.7대 1 기록

수의예과 일반전형 13대1 학·석사 통합 의전원 6.2대 1

2013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53명 모집에 2064명이 지원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수의예과 일반학생 전형으로 8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 유형별 경쟁률은 ▲일반학생 5.9대 1(275명 모집에 1627명 지원)

▲취업자 1.3대 1(7명 모집에 9명 지원)

▲예체능 특기자 1.6대 1(49명

모집에 78명 지원) ▲농어촌학생 3.4대 1(62명 모집에 212명 지원) ▲특성화 출신 2대 1(55명 모집에 110명 지원) ▲특성화고졸업 재직자 0.04대 1(46명 모집에 2명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0.4대 1(59명 모집에 26명 지원) 등이다.

특히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일

환으로 지난해부터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성화고졸업재직자 전형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으나 올해에는 2명이 지원했다.

전형 유형별 경쟁률은 ▲일반학생 5.9대 1(275명 모집에 1627명 지원)

▲취업자 1.3대 1(7명 모집에 9명 지원)

▲예체능 특기자 1.6대 1(49명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은 6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 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 2차 모집결과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발표는 아간학과, 예·체능 계열 및 취업자 전형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시험 성적 발표 후인 오는 12월7일로 예정돼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 중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 한다.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
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됨

3. 접수마감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5.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 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제33회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언론미디어센터 영자신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2년 9월 28일(금) 오후 4시

□장소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1층 세미나실

▶참가 신청

□ 참가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신청기간 : 2012년 9월 10일(월) ~ 9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시상내용

대상 1명, 상금 : 50만원

우수상 2명, 상금 : 각 25만원

장려상 3명, 상금 : 각 10만원

언론미디어센터 영자신문

사설

저조한 취업률, 분발을 촉구한다

2012년 우리 대학 취업률이 47.7%로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건강보험연계 취업률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취업률이다. 2011년 50.9%, 2010년 48.9%였다.

통계를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타난 수치만을 보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취업률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정한 비교대상을 설정하면 나름대로 정책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의 취업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강보험연계 취업률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의 취업률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2011년 경북대학교 본교가 기록한 59.0% 취업률이 유일한 예외이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취업률 50%'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 취업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거점국립대학은 4개 (경상대 46.3%, 전남대 본교 47.3%, 제주대 47.7%, 강원대 본교 48.0%)이다. 2011년의 경우에는 2개 (충북대 49.3%, 전남대 본교 49.6%), 2010년의 경우에는 4개(전남대 본교 46.6%, 경상대 48.1%, 충북대

48.8%, 제주대 48.9%)였다.

작년에 비해 올해 지방거점국립대학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 포인트 상하로 취업률이 하락하였다. 다른 지방거점대학들도 취업률이 하락하였으나 올해 우리 대학의 취업률 하락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금물이다.

2010년 48.8%, 2011년 49.3%로 최하위권에 머물던 충북대가 올해 55.1%로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사례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전북대도 올해 2.7% 포인트 취업률이 상승하여 최상위권으로 도약하였다.

이런 학교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강원대 본교(54.9%-51.4%-48.0%), 올해 8.8% 포인트 취업률이 하락한 경상대의 사례도 살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우리 학교가 전개해 왔던 여러 사업들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대학 취업률은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명품대학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분발을 촉구한다.

대통령선거와 지적 시민의 의무

정치란 '권력을 형성하고, 분배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이란 '폭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공동체는 합의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권력은 요술막대기처럼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 힘에 도취되지 않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따라서 민주적 공동체는 민주주의와 인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면 정당화되는 권력을 형성하고, 형성된 권력을 적절히 사용할 권리의 담당자를 선출하고, 권리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칸트는 완벽한 제도는 악의 종자들로 출렁한 정부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능동적이고 현명하며 공공성을 존중하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완벽한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구화가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주역으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존에 지대한 영향은 미친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전직 대구지방국 세청장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죽전·해직·구속 됐다는 기사를 봤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는가? 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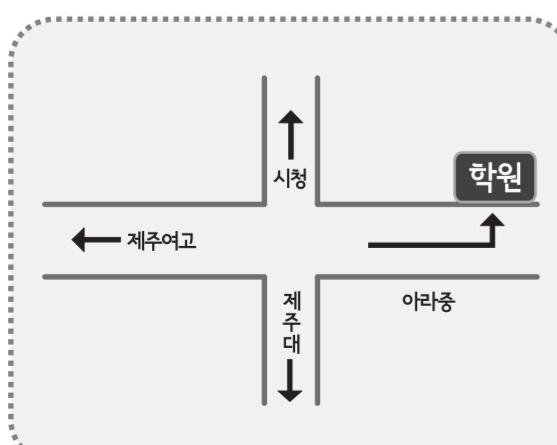
KBS 사장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해직되고 사법부가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검찰을 동원한 기획 수사를 통해 개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산 송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십조의 예산을 강이나 바다에 버릴 수도 있고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그 자녀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및 주거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다니엘 벨이 지적했듯이 대학은 "지적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다. 성장하는 지적 시민으로서 제주대생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숙고하고 결론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지적 시민의 성장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숙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에 누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선거에 호주 같은 곳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당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리나라에서 투표는 아직까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명 시민의 도덕적 의무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 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755-9900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

♡확! 바뀐 사운드 라이브러리로 초대합니다♡

- ▶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과 시설
- ▶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 ▶ Speaking 위주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 ▶ 영어를 영어로 학습하는 콘텐츠
- ▶ 수준 Test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
- ▶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학습
- ▶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통합적으로 학습
- ▶ 각 단원별 Self-Test 제공으로 성취도 확인 학습
- ▶ 음성인식 엔진을 통한 발음교정 학습
- ▶ 각종 DVD, Video Tape 등 풍부한 학습자료 구축
- ▶ 전문 Tutor를 통한 영어 학습 상담 프로그램 운영

♡ ENGLISH CAFE OPEN ♡

- ▶ Free Coffee
- ▶ Free Talking
- ▶ Free Self Upgrade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064)754-2291~2292, http://flie.jejunu.ac.kr

사범대 학생회, 감사지적 최다… 4회 이상 경고 8곳

<예산 삭감 기준>

총대의원회 상반기 감사결과

사범대학 학생회가 상반기 감사결과에서 9회를 지적받아 25%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준하나' 총대의원회(의장 김진영)가 지난 10일 '2012학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평가서'를 중앙자치기구에 게시했다.

공약감사, 사업감사, 회계감사로 나눠 평가한 이번 감사에서는 총학생회, 종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 연합회 등 4개 중앙자치기구와 13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장애인 인권위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가 감사를 받았

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일만아라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생회로 '총평받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여자친구' 종여학생회는 영수증 내에서 서명누락으로 경고 1회를 받았고 총대의원회는 경고가 없어 두 자치기구 예산분배에 삭감금액이 없었다.

'Why not?' 동아리연합회는 회계장부 보상금에 대한 내용 오기 등 회계 감사에서 총 4건을 경고 받아 하반기 예산이 20% 줄어들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사범대학 9회, 생명자원과학대학 7회, 사회과학대학 6회, 인문대학·공과대학 5회, 간호대학

학 4회의 경고를 받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해양과학대학 3회, 예술디자인대학 3회, 경상대학 2회, 자연과학대학 1회, 수의과대학 1회, 야간강좌부는 1회를 지적받아 예산이 줄지 않는다.

또 장애인 인권위원회는 5회의 경고를 받아 예산의 10%가 삭감됐다. 졸업준비위원회는 2회를 지적받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김진영 총대의원회 의장은 "지적된 부분을 하반기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하반기 감사는 10월 중에 실시해 일반 학우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김은영 연구원 일본서 우수논문상

일본 번식생물학회서 높이 평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반 구축"



김은영(줄기 세포 연구센터) 연구원이 일본 번식생물학회 지인 Journal of Reproduction and Development (JRD)의 '2011년도 JRD Outstanding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김은영 연구소장 (미래생명공학연구소 협동 연구책임자)은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 획득한 생리활성 물질의 소 배아 배양에서 새로운 단백질 첨가제로서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는 2011년도 1월 JRD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책임자인 박세필 교수는 "연구팀은 첨단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체세포복제 등을 통해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기술 개발 및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김은영 연구소장 (미래생명공학연구소 협동 연구책임자)은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 획득한 생리활성 물질의 소 배아 배양에서 새롭게 단백질 첨가제로서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는 2011년도 1월 JRD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의류학과, 12일부터 친환경 패션 전시회 개최

천연염색 포럼도 열어

의류학과(학과장 이해선)는 WCC를 맞아 이벤트 행사를 연다.

12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친환경 패션전시회가 열린다.

'패션과 소재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약 30벌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갈옷을 비롯해 차세대 친환경 날염방법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기법'

으로 만든 친환경 의복과 소품류가 선보인다. 12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 다목적실에서는 '천연염색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선 '자연에서 얻는 환경친화적 색소의 응용(남성우 성균관대 교수)', '천연색소원으로서 해조류의 활용(신윤숙 전남대 교수)', '반달염색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쪽 염색(조경래 신라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다.

"중입자 가속기 도입 필요"

제주대병원, 관련 세미나 열어
소량으로 암세포 효율적 치료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 4일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입자가속기 도입 관련 세미나를 받게 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방사선종합연구소 관계자를 암치료에 있어서 발전된 기술로서 중입자 가속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속에 있는 중이온을 빛과 비슷한 속도로 만들어 초당 10억개의 원자핵 알갱이를

몸 속으로 보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원리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최신 암치료기기의 일종이다.

장점으로는 적은 양으로 한번에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짧고 정상세포의 손상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는 점이다.

강성하 병원장은 "현재 중입자가속기는 전세계적으로 일본 3기, 독일 1기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장은 "이 장비를 도입한다면 도민들의 암 치료는 물론 국내 및 해외에서 암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이들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자

우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211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제주학총서 12

제주유래 3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유래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면암 최익현을 비롯하여 여러 제주유배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들의 유배생활을 했던 제주목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3개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유배인이 많이 왔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270여 명의 유배인들이 내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대정현에는 소선증기에서, 제주목에는 소선후기에 들어 집중적으로 내도를 했었다. 그래서 대정현의 유배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양진건 지음 | 255쪽 | 제주대출판부 | 15,000원



제주대학교

연변 교육의 핵심은 '소인수학급교육'… 교육혁명 성공해야

학술기고 연변: 오래된 미래, 새로운 미래



이 인호
교육학과 교수

지가 되기도 했다.

1900년대 초, 이상설과 이동녕을 비롯한 항일민족운동가들이 국권회복과 항일독립 운동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이주하면서 용정은 역사에서 부각된다. 항일운동의 발단은 1906년 서전서숙 설립으로 시작되어 명동학교 등 사립학교 설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민족 운동가와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주민들에게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한편으로 김좌진, 나윤규, 윤동주 등 많은 항일투사를 육성해 민족해방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1933년 말 용정에는 무려 27개의 학교, 5,896명의 학생(용정 인구의 39%)이 있었으며, 당시 주택의 70~80%가 유학생들의 하숙집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용정은 연변지역에서도 근대 민족교육의 발상지였으며 광복 이전까지 항일민족해방의 전초기지로서 오늘이라는 미래를 가꾸어온 역사의 현장이다.

연변의 교육 '혁명'

용정으로부터 형성된 연변의 민족교육과 교육이상은 중국에 널리 알려져 연변은 일찍이 '교육의 고향'으로 칭송되어 왔다. 그러나 연변교육은 중국의 개혁·개방 및 한중 수교와 이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들어 연변의 조선족 83만 명 중 절반은 한국에 그리고 20만 명 정도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중앙일보, 2012.9.4).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연변교육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조선족 학교는 213개에서 112개로 감소되고, 교원들은 아직 또는 이탈하고, 학생의 65% 이상은 결손가정자녀가 되면서 연변교육의 생태 환경은 파괴되었다. 교육의 질적 하락에 따라 학부모의 불만족이 초래되었고, 중국에



연길시 제10중학교(조선족학교)에서 찍은 사진.

학습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연변내 한족학교로 전학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연변 교육 혁명'이고, 그 핵심은 소인수학급교육에 있다. '소인수학급교육'이란 학급 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하는 소규모 학급교육을 의미하지만, 이를 단순히 교육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육혁명'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천민, 2009 : 그의 아들은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

첫째, 소인수학급교육은 2000년 용정과 연길의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2005년 11개 학교로 시범확대와 실험을 거쳐, 2007년 연변지역 전체 조선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핵심 교육정책이다.

둘째, 소인수학급교육은 교육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변교육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질과 특성'이라는 강점을 조점을 두었다. 여기서 특성이란 민족문화와 민족교육의 정체성이고, 특유의 질이란 소규모학급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의미한다.

셋째, 소인수학급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생활'을 목표로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강의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소인수학급교육은 학습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연변 조선족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의 출구이기도 하다.

새로운 미래 만들기

1906년 서전서숙의 설립으로 형성되어 온 연변의 교육이상은 1세기를 지나 2007년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청이 주진하고 있는 교육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인수학급교육을 전면 실시한 2년 후인 2009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길시 조선족학생의 학업성적이 한족학교를 추월하고,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족학교를 초월한 후 지

금까지 앞서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도 회복되고, 한족학교에 다니던 조선족 학생들이 조선족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한족으로서 조선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 교육혁명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교육혁명의 핵심인 민족문화 교육의 정체성과 소규모학급교육이 더욱 발전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단순히 사회 변화의 영향만을 받는 종속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은 사회환경 속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전달받아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상정해야 하며 내외적 변인들이 동력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서전서숙이 종만한 내적 요인과 외적 동력을 바탕으로 근대교육의 명동학교로 탈바꿈되었듯이, 연변의 교육혁명은 축적된 내적역량의 바탕 위에 외적 동력을 요청되는 시점이다. 용정이 오래된 미래(오늘의 교육이상)를 배태하여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지켜왔다면, 오늘의 연변은 세평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새로운 미래를 꿈꿔본다. 제주와 연변의 교육적 만남이다. 이는 제주대학교와 연변대학교의 더욱 밀착된 학술 및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과 연변 교육현장과의 맞춤형 협력을 의미한다. 다행히 1990년대부터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육지부의 대학들과 경쟁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비전이 요구된다.

연변의 훈춘은 동북아의 홍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는 동남아의 허브를 꿈꾸지 않는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제주와 연변은 대동아시아로 나가는 길목이다.



왼쪽은 최초의 명동소학교, 오른쪽은 윤동주 생가이다.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이 칼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에서 기획 운영합니다. STS연구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ts.jejunu.ac.kr>), 트위터(<http://twitter.com/jejusts>), 페이스북(<http://facebook.com/jejusts>).

과학의 양면성에 대한 성찰-인문학적 과학을 꿈꾸며



장승희
초등윤리교육전공 교수

정보처리에서 속도와 효율성이 얼마나 발전 할지가 관심사가 되었다. 호이징거의 이론 바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걸맞게 오늘날 사람들은 호모 스마트쿠스(Homo Smartcus)가 되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지하철에서 잠자는 사람과 연인들, 술 취한 사람 빼고는 모두 이 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키카오도록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웹서핑을 하고 있다.

심지어 카페에서는 연인이 데이터를 하면서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한다. 그들을 보며 "왜 만날까?"라는 아주 소박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이제 얼리 어답터는 진화하여 다양한 노마드(nomad)족으로 변신한다. 그들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유(浮游)하며 산다. 런치 노마드, 커피 노마드, 잡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까지 다양한 노마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에 살면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개인 전화기로 통화할 수 있을 거란 말을 했더니 전화선은 어떻게 할 거냐며 모두 웃을 적이 있었다. 무선이 없을 때였으니 그런 고민은 당연했다. 당시 성적처리 컴퓨터가 386이었고 도트프린터로 성적표를 뽑을 때면 교사가 앉아 종이를 접어줘야 했고, 퇴근 할 때는 두 대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쇠창살을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야 했던 시절이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소통과

심히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몇 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 거의가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정보검색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2G폰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출장을 가 지하철을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이다. 이다니 나만 기계자(機械痴)로 떨려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진다. 내가 예상했던 과학기술의 양면성-순기능과 역기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처음 인터넷 게임이 보급되면서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기 시작할 때 나중에 큰 돈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즐거워찾기' 방법을 배우고 교사들 책상마다 인터넷이 놓여 질 때 이제는 대화가 적어질 것이 걱정되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치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격차는 빈부 격차와 겹쳐져 현실에서 소외(疎外)를 양산하고 있다. 코로족, '허키코모리(弓き籠もり)' 등 비사회적 은둔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의 발전, 속도와 효율성에서 엄청난 유용함을

주고 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발전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학문은 과학과 동의어로 쓰인다. 과학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 이지만, 이것은 자연과학에 국한된 말일 뿐이다. 현대 모든 학문들은 과학을 지향하며, 과학을 표방한다.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을 넘어 인문학마저도 과학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원래 학문을 의미하는 용어인 'science'는 통합적 지식을 의미했고, 동양의 학문도 문사철(文史哲)을 통합한 형태였다. 19세기 과학의 발달과 학문 분야의 가속화로 학문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에 맞닥뜨렸다. 그래서 월슨이 '사회생물학'에서 '통섭'을 말한 이후 통합학문, 융합학문이 등장하였고, 이제 학문의 융복합이 당연시되고 있다.

기술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라고 되어 있다. 이 점에서 기술은 과학적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기술로 연계되어 인간의 삶에 유용한 것들로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삶은 과학기술 없이는 생존도 유지도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권의 책

숨은 권력자들의 황제뽑기

권력의 달콤함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보다. 매번 치러지는 여러 종류의 선거마다 부나방처럼 사람들이 달려들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형태들을 바라보면 말이다.

금년 말,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선출을 앞두고 있다. 민의에 의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절대자인 '황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한국의 대통령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라 칭해질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권중달 저작

『황제뽑기』

과거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황제는 지고무상(至高無上)한 통치자이자 천명(天命)을 받은 자로 인식되어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황제제도는 중국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에서 시작되어 중국최후의 왕조인 청(淸)이 붕괴되는 신해혁명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2천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안 그 제제를 유지해온 통치질서였다. 동아시아의 주변국이 역시 중국의 황제제도를 모방한 정치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근세이전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정치제도의 핵심이었다.

이 책은 전한(前漢)시대-중신들의 황제뽑기, 후한(後漢)시대-황태후의 황제뽑기, 삼국(三國)에서 진(晉)시대-격동하는 시대의 황제뽑기, 남조(南朝)시대-꼭두각시를 황제로 뽑기, 북조(北朝)시대-무장세력의 황제뽑기, 당(唐)시대-한족들의 황제뽑기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보이는 황제뽑기의 특징을 잘 간추려 내고 있다.

지은이는 평생을 황제의 정치교과서라 불리는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사상사(思想史) 연구에 평생을 헌신한 저명한 역사학자이다. 또한 최초로 『자치통감』을 한글로 완역하고 출간(전 31권)한 장본인으로자자치통감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시대의 권력자들이 황제를 세우는 과정을 상세하고 쉬운 설명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역사학의 대중화에 헌신한 온노(老) 역사학자의 꿈과 열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지은이는 말한다. "단순한 과거 사실은 쓰레기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 변화의 경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역사는 쓸모없는 쓰레기 될 것이다. 반대로 이 변화의 경향을 파악한다면 이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명품의 부속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 사실이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실용학문이 될 수도, 비실용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통령뽑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정창원

사학과 교수



강의에 열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메신저 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에서 기술로 전환하는 것도, 기술에서 삶의 도구로 바꾸는 것도 인간이며, 그것을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간에게 그것이 수단과 도구로서 세대로 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강의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들, 사람들을 만나고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친구들, 부모와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하는 아이들.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하여 어떤 예의를 지녀야 할까?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치의 궁극에 존해야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이다.

이제 스마트폰과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할 때다. 스마트폰을 쉬고 나의 삶을 아날로그로 기록하는 연습도 해보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이고 즉물적인 인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기다림과 설렘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걸, 그것은 우리가 왜 기계를 만들어냈는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제6대 교수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 기호 1번 양길현 교수

“대학본부와의 비판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수회의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1> 퇴임교수협의회와 조교협의회 구성 : 퇴임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수회의 자매기구로서 퇴임 교수님들의 재능기여와 제주대학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조교들에 대해서도 교수회 자매기구로서 조교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수와 조교간의 소통과 협력의장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단과대학 교수회의와의 연계 구축 : 제가 대표를 맡았던 제4대 교수회는 개별적으로 학장협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몇 번 시도했지만 서로가 바빠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6대 교수회에서는 교수회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와의 연계체제 구축 및 소통의 제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과대학 교수회의에 교수회가 필요한 경우 의제 제언과 회의 참여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3> 월례 오찬대담 활성화 : 제4대 교수회에 이어 제6대 교수회에서도 매월 글로벌 하우스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학교발전과 친목도모를 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임·승진·퇴임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죄를 받을 만한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교수님들간의 따뜻한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례 오찬대화에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전문서를 통해 취합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의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4> 기타강교실 등 대회의실 용도 확대: 교수회관 대회의실은 세미나 등 다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12년에는 월요일마다 제주대학교 교직원 학장반 이 학장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제6대 교수회에서는 기타강교실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보다 다목적 용도의 대회의실을 교직원 여러분들의 친목과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2년전 제4대 교수회장에 임하면서 ‘온유와 합리 그리고 균형으로 교수회에 임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한 바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어 제가 다시 이번 제6대 교수회장에 당선된다면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공약 사업을 포함하여 혁신적 총장이 지향하는 대학본부 일들이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의 비판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을 쓰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원성과 창의, 소통과 조율, 견제와 협력, 약자 옹호와 네트워크 확대는 제가 꿈꾸는 우리 대학교 교수회의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교수회 목표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 모금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는 데 제가 다시 한 번 겸허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교수님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되도록 온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연구와 강의로 노고가 많으신 교수님 모두에게 건승을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호 2번 송석언 교수

“교수들의 자존회복·권익옹호에 진력”



존경하는 교수님.

아직도 한낮에는 더운 열기나 날아있지 만 9월입니다. 올 여름은 일찍 찾아왔고,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 무렵에 불라벤이 우리 제주를 강타하였는데, 피해가 없으셨습니까?

이번에 제주대학교 제6대 교수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석언입니다.

저는 최근에 초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평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대학은 건학 60년이라는 연륜과 양적 발전이라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현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심하게 훼손되어 대학자치의 가장 중요 한 주체인 우리 교수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등 뜻하지 않은 외적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평교수 간, 노장과 소장층 교수간, 교수와 직원간 등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 상태를 직시하면서 이제는 비로소 ‘소통하고 해결하는 교수회’를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감히 교수회장 출마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번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회 임원진이 전원 중도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상시국’ 인데 과연 새로운 교수회장 체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 출마의사를 접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짧은 임기 내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말로 우리 대학 발전의 주체인 교수회가 더 이상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의 기坦없는 의견을 응광로에 용해하여 단단한 철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에게 교수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여 임기 내 분명하게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대학교 교수! 그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과부의 허울뿐인 총장공모제로 인한 낙하산 인사 등 변형된 총장임명제를 방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도로서의 총장직선제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들의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고 적용 가능한 공모에 의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후보자 검증 및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장임용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량 있는 대학 내·외부 인사의 후보 발굴 및 영입 그리고 선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약력>

△법학과 교수

△중앙대 법학 학사 △중앙대 법학 석사 △중앙대 법학 박사

△2009.3~2011.3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06.11~현재 제주도 인사위원회 위원

△2006.3~2008.12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장

△2006.1~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처장

◇ 기호 3번 이상봉 교수

“대학운영의 비판적 협력체계 건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다시 교수회장선거에 입후보한 경상대학 회계학과 이상봉 교수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 우리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학적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새로이 구성된 교수회는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수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도적이

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장 보궐선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이행하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공약의 이행을 조금씩 뒤로 미뤄야 하는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교수님들께 못 다 이룬 약속을 확실히 지키기 위하여 다시 교수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첫째, 교수회장 선정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둘째, 제주대학교 교수회!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운영의 최고심의기구인 교수회의 위상을 바르게 정립하고 충분한 토론과 대안제시로 학내의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권의 옹호와 우리 대학 발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상징하며 대학 발전의 주체로서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본래 의미의 교수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중단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교수회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교육 여건과 연구 역량의 제고가 우리 대학의 발전에 밀접성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한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과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는 과정에서 예산제를 확장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수회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책임

질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

정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교수님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총

장상(總長像)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셋째, 교수회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총

장상(總長像)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넷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습니다.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에서는 어떤 부

서가 어떤 사업에 얼마의 경비를 사용하는

지, 또 그 사업성과가 어느 만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

습니다.

다섯째, 교수님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 연

구 이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장의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

수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저

해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

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반드시 수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저는 교수회가 오로지 교수와 우리대학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의 자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앞장서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 당장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회장 선출 공고

●선거일시 : 9월 25일(화) 10:00~18:00

소견발표 : 9:30~10:00

1차투표 : 10:00~14:00

2차투표 : 16:00~18:00

●선거장소 :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제주대학교병원 도서관, 사라캠퍼스 회의실

●입후보자 간담회 결과

-입후보자는 제6대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에 따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합의함.

-입후보자 합의 하에 당일 공개 소견 발표회만 개최(1인당 10분 이내)하기로 합의하고, 선거참관인은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6대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서약함.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연구실 방문 허용(명함배부 가능), 전자통신 선거(전화, 문자, 메일 등) 허용, 유인물 배부 불허로 합의함.

<주요약력>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 정치학 학사 △서강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2010.11~2012.3 제4대 교수회장

△2005.9~2007.8 제주대 평화연구소 소장

교수시론

김정희
경영학과 교수

“

어려운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시작한다면
어느새 꿈과 소망은 이뤄진다

”

돌아르방



매일 '제주대학교'라는 등판이 새겨진 교문을 무심히 스쳐간다. 신입생 시절에는 뭔지 모를 가슴 벅찬 감정도 느꼈다. '오늘은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떤 큰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 문득 오늘 교정을 향하면서 본 등판을 보고 있노라면 슬퍼졌다. 지난 밤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거꾸로 가는 제주대학교 취업률'을 바라보자니 서글픔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내가 교문을 지나면서 느꼈던 제주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던 곳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를 서글프게 한 건 '취업률'이 아니었다. 제주대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각 대학, 대한민국에 퍼진 취업, 취업 때문이다.

지금 제주대는 비상이다. 올해 제주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률은 47.7%로 지난 해 50.9%보다 더 떨어졌다.

제주대는 취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취업률 하락 원인을 찾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대신문 비평

김연선
국어국문학과 3

제주대신문이 새로 나올 때마다, 아라뮤즈홀에서 한 부 꺼내들고 인문대학에서 강의 듣기 전, 그 신문을 읽어 본 일들이 떠오른다.

요즘은 수업이 사회과학대학에 있다 보니, 대학본관에서 꺼내들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제주대신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항상 지나고 다니는 스마트폰처럼, 쉽게 학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그자 깨달음을 느끼는 재미로 읽기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독자의 눈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어국문학과 후배의 부탁이 그 계기였는데, 처음으로 제의를 받자마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제주대신문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마도 현재 국어국문학과 후배 네 명이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고, 또한 언론미디어센터 주간교수님이신 김동윤 교수님께서 우리과 교수님이시라.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하고 미숙한 눈으로 제 873호를 새롭게 보고자 노력했다.

이번 호에서 특히 내가 제일 눈여겨 본 부분은 8면의 '중앙자치기구 중간평가'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중앙자치기구가 내세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잘 분석해줘서, 학

푸른 낙엽의 단상

아직 여름날의 열기가 남아있는 아라캠퍼스를 걸으면서, 문득 이 곳 저 곳에 흩어져있는 푸른 낙엽을 보았다. 가을은 저만치 멀리 있는데, 16호 태풍 불라벤이 휘몰아쳐 잎사귀, 나뭇가지, 뿌리를 할 것 없이 뒤흔들면서, 때 이른 푸른 잎이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낙엽이 되어 떨어진 것이다.

푸른 잎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아무도 모르게, 거친 바람 앞에 파란 잎을 하나 둘 빼앗긴 나무는 몇 잎 겨우 불들고 훤히 암상한 가지들만 늘어져 있다. 마음속엔 아직 어려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데, 파란 낙엽엔 그냥 누군가가 밟고 간 흔적만 있을 뿐 결실이 없다.

낙엽! 나는 울긋불긋 굽게 물든 낙엽을 좋아한다. 나는 의례적으로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 낙엽을 색깔별로 한 잎 한 잎 주워 담아 책갈피에 고이 간직하고, 겨울을 헤아리며 봄을 기다린다. 그러면 내 책갈피에서 숨어 지내며 노랗게 바랜 나의 낙엽은 봄을 마중하고 추위를 걷어 내며 파란 어린잎으로 새로이 돌아날 것 같기에.

이제 새학기가 되었다. 수강신청, 개강파티, 동아리 행사, 교우관계, 과제준비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과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분주한 일

과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면, 목표는 없고 과정만 있는 평이한 한 학기로, 푸른 낙엽이 되어 지고 말터인데... 이제 결실이 있는 노랗고 빨간 단풍으로 하늘을 날아오르자! 힘차고 멀리 거센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이 있다.

첫째, 모든 일에 목표를 세우자. 크고 작은 과제들을 구분하여,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학기 단위의 목표를 각각 세 가지로 세워보자. 그리고 내가 지나온 길이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해보자. 목표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켜 줄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둘째, 시간을 관리하자. 시간의 경계를 구분짓고, 그날 그날 시간의 사용내역을 들이켜 보며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한 일에 대해 집중관리하자. 긴급한 일이나 사소한 일에 얹어버리기보다는 포기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 중요한 일을 먼저 실천하자. 쉬는 시간, 공간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활용하자.

셋째, 많은 것을 사랑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받을 수록 많이 배풀려고 노력하자.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말되, 큰 것에서 승부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소외된 곳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 괴로워하는 친구, 낙담하는 친구, 외로워하는 친구의 마음들도 지나치지 말고 늘 함께하자.

새학기에는 가을이 채 오기도 전에 연약한 아쉬움으로 떨어지는 푸른 낙엽이 아니라, 텁텁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채운 가을 낙엽으로 풍요로움을 마음껏 만들어 보자.

가끔씩 찾아오는 바람의 유혹에도 끄떡없이, 가을 낙엽으로 물들 때까지 높진 않더라도 힘껏 하늘을 향해 올라보자. 나태함을 잊고, 무절제를 없애고, 외로움을 털어 버리고, 세찬 바람에 맞서서, 튼튼한 모습으로 가을을 맞이하자. 더 멀리 더 높이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꿈과 희망, 열정과 인내로, 빨갛게 노랗게 물들여 보자!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며,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의 목표와 계획을 포기하지 말자.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그렇다고 달리지도 말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어느새 꿈과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도 푸른 낙엽은 다가올 가을을 잊고 말없이 지고 있다.

동문칼럼

대학생 스펙 쌓기의 불편한 진실

한수미
제주관광대 직원
산업디자인학부 93학번

전에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스펙(specification)'이란 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학점, 자격증, 토의점수, 경험 등을 말한다.

학생들에게 방학(放學)이란 말 그대로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날씨에 적당한 휴식을 가지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오늘날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많은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에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원을 전전하며 서포터즈, 홍보대사, 공모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 이유는 자기만의 스펙을 무기로 남보다 더 빠르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다.

우스갯소리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을 위해 꼭 갖춰야 할 요소로 학벌, 학점, 외국어, 자원봉사, 공모전, 인턴, 성형이 '취업 스펙 7종 세트'로 불린다고 한다. 학생들은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학 중에도 피나케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금년 초 발표한 '글로벌 고용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7,500만 명의 청년이 실업자라고 한다. 전 세계 청년층의 실업률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 이탈리아는 35%를 넘는다. 또 우리나라 20대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정부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10% 미만이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은 대학생들이 좀은 취업문을 극복하기 위해 스펙 쌓기를 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고 있다. 어떤 대학생은 취업을 위한 어학, 자격증, 해외연수 등으로 1인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봉사활동도 스펙의 일환으로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경험이나 학비 조달과 부족한 해외연수 경비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인 스펙 쌓기 경쟁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될 수 있고, 우리 대학의 당면한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졸업을 앞둔 재학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3학년생들은 지나친 스펙 쌓기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한 다른 분야의 전문서적이나 교양도서를 읽거나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도 스펙을 쌓는 데 중요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대학생들 사이에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찌면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진정한 스펙 쌓기는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당국도 잘못된 스펙쌓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록담

'국회' 초등학교 어른아이 생활통지표

이름 : 박그네

학년·반 : 6학년 1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 결석이 잦습니다. 9번 중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반장을 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잘못에 대한 인정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잘못에 대해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 어른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빠는 무슨 스타일?

정준길 변호사는 안철수에 불출마 압력

오빠는 '협박' 스타일

김찬경 회장은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

오빠는 '협잡' 스타일

강정의 현수막 갈기갈기 찢어버린 당신

오빠는 '검객' 스타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건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들은 광남(狂男) 스타일!

통일 주제로 하나 된 제주대와 울산대 간 담론의 장

우리에게 '통일'은 가깝고도 먼 단어다. 특히나 요즘 학생들에게 통일이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명적 과제가 아닌, 부담스럽고 관심 없는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대 학생들은 지난 7일 울산 대 학생들과 함께 통일 담론의장을 펼치며 다시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와 울산지역청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제주·울산 대학생 합동 대토론회 및 안보현장견학' 행사는 7일부터 2박 3일로 진행해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는 이들과 동행하며 통일 토론회에 참석하고, 통일안보 현장 및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2박 3일을 함께했다.



통일토론회 지난 7일, 제주에서 울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제주대와 청년위원회는 10시 반경 울산대에 도착했다. 11시를 넘긴 시각에 민주평통 울산지역청년위원회에서 주관한 대학생 통일문제 대토론회가 울산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렸다.

최우혁(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 뒤에는 김철(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안보'. 울산대 이상용(사회과학부 경제학과 CSU 회장)씨가 발제를 맡았으며, 진행에는 울산대 장병의(울산대 사회과학부/울산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장) 교수와 나섰다. 장병의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수단"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NPT를 탈퇴한 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핵 미사일 개발에 관한 북한의 현 상황을 알렸다. 그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남한이 큰 피해를 입고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 본 토론회의 주제가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 이상용씨는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결정적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북한은 아직까지도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군축, 미군 철수 등 전쟁이 끝난 만큼 긴장의 고삐를 풀고 있다"며 "북한을 대처하는 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와 안보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며, 동시에 주변국과의 협조도 긴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확고한 안보전략,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며 "국론을 통일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해 총체적

토론회 발표 제주대 국민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제주대 임현기(윤리교육과 3)씨가 발표를 시작했다. 임씨는 우선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돼 있는데, 전자는 핵과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체제에 대한 견제고, 후자는 필요식량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을 완화시켜주는 포지티브한 정책"이라며 "이 둘은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의 안전이라는 기본적 철학 속에서, 일관되고 상호연계된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어 "앞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정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주관적인 해석이나 정부 홍보 차원에서의 왜곡 발표, 은폐는 후에 더 잘못된 결과를 초래



7일 열린 제주·울산 대학생 합동 토론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집채널의 경우 동맹국을 통해 전해듣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제는 이러한 후진적인 관행을 탈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와 관련한 전담 기구의 설치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강승구(정치외교학과 4)씨의 발표가 이어졌다. 강씨는 우선 "대북지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문제에 한정할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군사적 사업으로 연계되는 지 잘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물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중국에는 우리의 군사적 위협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씨는 이어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책

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국민적 여론의 수렴과 공정한 협상 체널을 강구해 갈등과 마찰의 최소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지원 문제를 함께 다룰 전문적인 신설 조직이 생겨야 한다"며 "견제와 지원 모두 가지 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주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 울산대 다음으로 울산대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윤준호(경제학과 4/학과 회장) 씨와 김가연(경제학과 3/학과 동아리 CSI 부회장)씨가 번갈아가며 발표를 진행했다.

윤준호씨는 우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일 방문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당시 사용되던 차를 타보는 울산대 학생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금을 통일 이후에 확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확보해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가연씨는 "통일세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세를 꺼리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씨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국가 재정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책에 맞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세를 부활시키는 방안과 민간주도의 통일복권,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등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숨가쁜 2박 3일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양선아(정치외교학과 2)씨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우리는 통일비용뿐 아니라 통일이 주는 혜택과 이익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굳이 민족사적 당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방비와 군사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지정학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북간 사업의 합동을 통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같은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중장기 목표로 하는 적극적 투자로 간주돼야 한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북한 재건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씨는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며, 앞서 토론자들이 말한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정리 고성준 교수는 "통일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안보가 중요하다"며 "핵무기와 같은 군사력 증강에 혈안인 북한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통일에 대해 학생들이 소극적인데, 어쩌면 이것은 학생들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분단이 된 것은 힘이 없어서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견지하길 바란다"며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어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통일안보 현장 및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후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다녀온으로써 안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얻었다. 제주대 학생들과 울산대 학생들 간에 즐기는 장이 마련 되기도 해, 두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현대증공업을 시찰하고, 경주문화를 탐방하는 등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숨가쁜 2박 3일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양선아(정치외교학과 2)씨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제주어 낱말맞추기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⑦	⑦
⑥				

()학과/학부 ()학년

이름 : 연락처 :

제주대신문

가로영식

- 제주에서 할아버지자를 자칭할 때 부르는 말이다.
- 그 반대말은 '할망'이다.
- 제주도민의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상상 속의 섬 이름이다. 문학 작품이나 민谣 등에 많이 등장하고, 각종 상호로도 많이 사용된다.
- '깔밥'의 제주어이다.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잔칫날 신부상에 올리운 이곳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 '그래'의 의미로 쓰이는 제주어다. "밥 먹어수과?" "○○, 훈저 먹으라."처럼 쓴다.
- 종이나 피루 따위로 만든 큰 자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낫'을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세로영식

- '派人'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밥 ○○ 먹으라."처럼 쓴다.
- '장난감'을 의미하는 제주어다.
- 무당이굿을 하면서 짭귀를 끊어야 할 때나 춤출 때, 또는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다.
- '돼지'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한글자로 '돗'이라고 한다.
- 얼을 못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놀림으로 이르는 말이다. 표준 어 '밥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여우'를 제주에서는 '여시' 또는 ○○라고 부른다.
- 무명실로 짠 피루인 '무명'을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9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이번 호 당첨자는 9월 26일(수) 877호 제주 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754-2277 또는 010-9206-4598

출제 :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1> 고희범 제주포럼C 상임 공동대표

160개 마을 탐방... "제주 농어촌은 역동적"



고희범

"제주도가 1%라는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1%라는 소중함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가치를 잘 활용해 제주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제주포럼C' 상임 공동대표 고희범(60)씨다.

고희범씨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학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CBS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로서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제주도로 다시 돌아와서는 사회단체 '제주포럼C'를 만들었다. '제주포럼C'은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다. C는 Change, Challenge, Communication의 약자로, 각각 새로운 변화, 미래를 향한 도전, 비전을 만들어가는 소통을 의미한다.

'제주포럼C'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미래를 만나다'라는 3부작으로 이뤄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부는 제주도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선배에게 길을 묻다', 2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마을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에서 길을 찾다'이다.

3부는 '함께하는 제주 미래'로 현재 도내의 18개 시 민단체가 함께해 1, 2부의 목소리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 미래 비전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두 번째 프로젝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통해 느낀 바가 많다고 했다.

현장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며 제주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받고 희망을 엮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죠.

고씨는 11개월 동안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통해 160개의 마을을 찾았다. 기억에 남는 마을이 많다고 했다. 과거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등 다양한 종자들을 가져다가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작물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마을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서 과거지 사람들에게서 개척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또 화순리는 화력 발전 배출수를 이용해 하우스 감귤 난방을 하고 있다. 대개 하우스 감귤 천 평을 재배하면 일 년에 6000만원의 난방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화순리는 화력 발전 배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1600만원만 들이면 된다.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 발전소가 있는 마을의 군수와 이장들이 회수리를 찾아오고 있다.

마을마다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성지아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청년 우수 인재 집중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직무별 전문가 초청 강연

대상 : 전학년, 미취업 졸업생

모집기간 : 9월 말까지

사업기간 : 내년 2월 말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직접 방문

2. 일본 무급 인턴십

대상 : JLPT 3급 이상의 2~4학년 재학생

지원사항 : 학점인정, 연수비용 등 지원

모집기간 : 9월 21일까지

연수기간 :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직접 방문

3. 재학생 학습과정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 전학년

설문기간 : 오는 21일까지

문의 :